

살림은 팍팍한데... 세계 경제 장밋빛 전망

골드만삭스, 성장률 4% 예측 선진국 금리인상 기조 등 영향 미국·중국 성장 둔화 전망도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의 호황 기조를 이어받아 탄탄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가 내년 세계 경제가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다른 주요 은행들도 줄줄이 낙관적인 경기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1년 이후 최고치인 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하치우스가 이끄는 골드만삭스 경제 분석팀은 지난 5일 보고서에서 내년 경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며 주요 경제국들이 금융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스도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기 확장세는 튼튼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확장세는 단일 지역이나 산업, 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다. 또 즉각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제·재정 과잉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일

제히 3%가 넘는 성장 전망을 내놓으며 이런 흐름에 동조했다. 투자은행별 내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UBS가 3.8%, JP모건체이스와 모건스탠리, 소시에테테네랄(SG)이 3.7%, 씨티가 가장 낮은 3.5% 성장을 점쳤다. 이들 은행은 내년 세계 경제가 각국 경제의 지속된 호황, 안정적 인플레이션 등에 힘입어 더 강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며 국가간 경기 동조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내년 세계 경기전망은 높은 경제성장, 안정적 인플레이션,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 기조 등 현재의 진행 상황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며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경기확장세를 탈 것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내년 경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모건스탠리의 앤드루 시즈 애널리스트는 이날 CNBC방송에 내년 미국과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힘든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즈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마지막 경기 확장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내년에는 성장 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미국 회사를 팔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럽 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또 중국도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영국, EU 재정분담 요구 수용 최대 65조 40년에 걸쳐 분납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 정부가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돼온 유럽 연합(EU)의 재정분담 요구를 수용, 향후 수십 년간에 걸쳐 EU 재정 및 연금을 분담키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이 EU 재정분담금을 일시불이 아닌 최대 40년에 걸쳐 그때그때 지불 기일에 맞춰 부담키로 했으며 전체 분담 액수는 400~500억 유로(약 50조~6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이에 따라 다음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개선된’ 제의를 내용을 예정하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약속한 모든 EU 프로젝트와 연금의 지급을 거듭 확인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영국 측은 이러한 제안이 EU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과 EU 퇴직 관리들의 연금을 보장함으로써 EU 측을 만족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당장 전체 분담 액수를 놓고 어려운 협상을 벌일 필요도 없게 된 점을 지적했다. 영국이 부담할 액수를 한꺼번에 합의하기 보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불 수요를 감안해 분담 액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영국과 EU는 현재 다음 단계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 EU 재정분담금과 EU 시민권, 그리고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이른바 3대 과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EU 측은 무역협상 개시에 앞서 3대 사안의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재정분담금 분납은 지난주 올리 로빈스 영국 협상 대표와 EU 집행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브렉시트와 다른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잉여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는 당초 브렉시트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반쪽 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초청 예산회의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화당 의회 지도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도 원전 신설 ‘뜨거운 감자’

일본에서 에너지 정책을 놓고 원자력발전소 신·증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정부가 원자력 신증설과 개축(재건축)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방침을 규정한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28일 열고 2050년에 대비한 장기 계획을 논의했다. 지구온난화 대책이나 에너지정책 논의를 계속할 방침을

확인했다. 현존 원자력발전소 노후화에 따른 폐로가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전 신증설이나 개축 필요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전문가위원회는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연구소의 분과회의이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의 사석연구회의 ‘에너지 정세간담회’에서도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중에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 정세간담회의 보고서를 기

초로 전문가회의에서 내년 봄부터 2050년에 대비한 에너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2040년 원전을 원칙적으로 폐로한다는 방침을 지키게 되면 2030년 비율은 15%로 떨어지게 되는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면 최장 20년 운전연장이 가능해 달성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2050년에는 운전을 연장한 원전도 60년이라는 최장운전 기한을 맞이하게 되면서 폐로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원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증설이나 개축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중국 여행사들, 금한령 풀리자 관광객 모집

중국의 관광 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이 28일 베이징과 산둥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자 현지 일반 여행사들이 곧바로 여행객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과 산둥의 일부 여행사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부 업체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안내 마케팅에 들어갔다. 그러나 씨티립 등 온라인 전문 여행사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 지역의 여행사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판매하되 오프라인 여행사만으로 제한했으며, 롯데호텔 또는 면세점에서 숙박·쇼핑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여행사 역시 자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도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유선전화나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만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베이징 펑펑 국제여행사 관계자는 “이 미 한국 단체여행이 개방됐고 베이징과 산둥에서 출발하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면서도 “한국 여행 상품에 롯데 관련 일정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갑자기 한국 단체관광이 가능하게 됐으면 산둥과 베이징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산둥이나 베이징에서 출발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워선의 지침이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인 발리 관광객 200명 버스·배편 출국

화산 분화로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200여명이 29일 오전 버스와 배편을 이용해 우회 출국길에 올랐다. 발리 교민사회와 현지 관광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 한국인 관광객 200여명이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주안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대절된 버스 7대에 나눠타고 수라바야 주안도 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이 버스는 발리 서북쪽 길리마눅 항에서 페리를 이용해 약 4km 떨어진 자바 섬 바누왕이로 건너간 뒤 육로를 거쳐 주안도 국제공항으로 향하게 된다. 응우라라이 국제공항과 주안도 국제공항은 직선 거리로 3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도로 환경 등이 열악해 이동에는 약 12시간에서 13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야 안도하는 관광객들이 많다”면서 “모두 15대의 버스가 준비된 만큼 사람이 모이는 대로 추가로 버스를 한 대씩 출발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는 한국

인 여행객 20여명이 다음 버스가 출발할 길 기다리고 있다. 서울에서 지인들과 함께 발리 여행을 왔다는 전모(여·46)씨는 “지난주 금요일(24일)에 와서 그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이틀간이나 발이 묶여 마음 고생이 심했다”면서 “그나마 여행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라바야로 이동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수도 자카르타로 이동한 뒤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국내선 항공편이 충분하지 못해 이날 중 전원 자카르타로 이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까닭에 대사관 측은 수라바야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발리 섬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신혼부부로 하루 약 400명이 한국행 항공편을 이용한다. 앞서 인도네시아 항공당국은 이날 새벽 회의를 하고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의 운영 중단 조치를 30일 오전 7시까지로 24시간 연장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야금 화산이 분화한 가운데 29일 항공기 운항을 중단 중인 현지 덴파사르의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 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기쁜 기념품!!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미리 및 예외금방위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월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가입시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천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